

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맞손'

특성화고 학생 노동권·학습권 보호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측은 도교육청에서 '2017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정책업무협의회에서 양측은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3학년은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을 나갈 학생이 실습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경우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사유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직무연수를 개설하는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특성화교육 발전 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 구성 등 세 부사항은 전교조 전북지부 실행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정해은 기자

직능경제인단체 전주지부, 소외계층 청소년 위한 생리대 후원 동참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주지부지부가 전주시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후원에 동참했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주지부는 이날 김승수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임규철 회장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회용 생리대의 유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후원금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이 없는 일회용 생리대나, 면생리대를 지원해 구입 없이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016만7000원의 후원금품이 모였으며,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708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했다.

특히, 시는 지난 5월에는 276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면 생리대14개(대4, 중6, 소4)와 속지(속사) 24개(대4, 중12, 소8), 비너스 위생팬티 등도 함께 지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여성들의 위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생애에 주기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위생용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이 해결이 쉽지 않은 고난이도 통합사례관리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A(46)모 씨의 가정은 일용근로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나 부부가 모두 알코올 의존이 높아 정신건강 문제, 자녀돌봄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고난이도 사례에 해당되며, 시 희망복지지원단과 미성동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대상 가구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에 이번 7월 신규임용된 복지직공무원 10명이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나아가 공공 사회복지담당체계를 직접 경험했다.

신규 공무원인 최지훈씨는 "말로만 들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여기저기 흠어져 있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송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산시 272-9417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호주시사 010-8645-9355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결론

▲ 김도아(김 호·김애란씨 장남)군·김민희(김중문 부안예총회장·채영숙씨 장녀)양 = 일시: 9월 2일(토) 낮 12시, 장소: 완주군 삼례 비비정농가레스토랑/야외무대, 연락처: 010-3035-0584, 피로연: 29일 부안컨벤션웨딩홀(예술회관 맞은편)

▲ 최창윤(전주시 前 완산구청장 최락휘·최명희의 장남)군·이지아(이호준·황귀덕의 심녀)양 = 일시: 2017년 9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엔터워커펠션웨딩 1층 미뉴엣바호출, 연락처: 최락휘(010-9423-3391)

▲ 임택근(전주시 금암동장 임상철·인병숙의 장남)군·송이리(송기용·김미지의 장녀)양 = 일시: 2017년 9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연락처: 임상철(010-8627-5575)

황배연 김제시의회 사무국장 명예 퇴직

황배연 김제시의회 사무국장이 지난 31일 후배 공직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황배연 국장은 업무가 주어지면 어느 분야든 최고의 부사로 만들어왔고 직원의 의사를 무엇보다 존중하면서 지시보다는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대내외적으로 높여 직원들로부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958년생인 황배연 국장은 지난 1983년 5월 공직생활을 시작해 광활면장 만경읍장 등을 거쳐 문화홍보실장장 행정지원과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9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안전개발국장을 거쳐 지난 1월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됐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문화홍보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제지평선축제 기반을 확고히 다져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데 기여해 김제의 명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된 뒤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협력 관계 조성, 연간 회기 운영계획 사전 공표를 통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소통중심 의회 구현에 공헌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산경찰서, 불법기기유통·활영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완산경찰서는 31일 강릉수 완산서점의 주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 회의를 실시해 9월 한 달 간 '불법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문제인 대통령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근절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은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전담반을 편성해 '위장형 불법촬영' 살치가 용이한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 및 단속한다.

또한 불법촬영행위 범죄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행위 촬영 및 유통자를 신고·검거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함께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 및 처벌법규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고창경찰서, 모범 중간관리자 발굴 격려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각 종 업무추진과정 숭선수범과 목욕정진하는 중간관리자들을 발굴 경찰서장 장려장을 수여하는 등 즉시적인 포상과 격려를 실시 내무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소통 밴드를 개설, 실시간 사건 및 일상적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업분위기 조성은 물론 비위예방에도 주력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등 중간관리자들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가족같은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동고동락 행사 진행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0일 남원경찰서에서 남원시 지역장애인협회(회장 김현숙) 회원 40여명과 '동고동락 행사'를 진행했다.

동고동락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경찰서로 초대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범죄 사전 대처 능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추진된 남원경찰서 자체시책이다.

이날 지적장애인협회 회원들은 경찰서 지하식당에서 경찰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어서 경찰서 4층에서는 경찰 홍보영상을 통해 경찰업무 소개와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및 112종합상황실 견학, 순찰차 탑승 등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 경주 프로그램

- 장수한우랑
- 사과낚시체험
- 깃털놀이
- 토마토속 '황금민자를 찾아라'
- 전국 현수 곤포노래기 대회
- 사과의 귀환
- 마을포차 체험

주최 | 장수군 주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